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혜 경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위험한 행동의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위험감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지각된 책임감의 매개효과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상 아

위험한 행동의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위험감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지각된 책임감의 매개효과

박혜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김상아

인 준 서

김상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 김 명 선 (인)

심사위원 박 혜 경 (인)

심사위원 조 영 일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사람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차이를 보인다. 선행 연구들은 어떤 사건이 미래에 미칠 영향력(파급효과)을 사람들마다 서로 다르게 예측하며, 자신의 행동이 미래에 미칠 영향력을 크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작게 예측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험이 내재된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지각된 책임감을 매개로 위험감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영향의 크기가 상해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170명(남 90명, 여 80명; 평균 연령 21.91세)이 참여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참가자들은 자신의 행동의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의사결정 후 발생할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으며, (2) 책임감을 많이 느낄수록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덜 하였다. 그리고 (3) 파급효과의 예측과 위험감수 의사결정의 관계를 지각된 책임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매개효과는 상해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만 관찰되었다. 종합하면,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 상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험한 행동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파급효과, 위험감수 의사결정, 지각된 책임감

목 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1. 파급효과의 예측	6
2. 파급효과의 예측, 지각된 책임감 및 위험감수 의사결정	9
III.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	13
IV. 연구 방법	
1. 연구참가자	14
2. 측정 도구	14
3. 절차	19
4. 분석 방법	19
V. 연구 결과	
1. 시나리오별 응답에 대한 기술통계치	20
2. 파급효과의 예측, 지각된 책임감 및 위험감수 의사결정의 관계	23
3. 파급효과의 예측과 위험감수 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지각된 책임감의 매개효과	31
VI. 논의	34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차

표 1. 시나리오별 응답에 대한 기술통계치	21
표 2. 헬멧 시나리오 및 스키 시나리오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24
표 3. 윤리 시나리오 및 재정 시나리오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28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모형	13
그림 2. 안전한 의사결정 집단과 위험감수 의사결정 집단의 지각된 책임감 차이 (헬멧 시나리오, 스키 시나리오)	25
그림 3. 안전한 의사결정 집단과 위험감수 의사결정 집단의 파급효과 예측 차이 (헬멧 시나리오, 스키 시나리오)	26
그림 4. 안전한 의사결정 집단과 위험감수 의사결정 집단의 지각된 책임감 차이 (윤리 시나리오, 재정 시나리오)	29
그림 5. 안전한 의사결정 집단과 위험감수 의사결정 집단의 파급효과 예측 차이 (윤리 시나리오, 재정 시나리오)	29
그림 6. 파급효과 예측과 위험감수 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지각된 책임감의 매개효과	33

I. 서론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도 원인과 결과로 간단히 분석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요소가 수없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니체 (F. W. Nietzsche, 1844~1900)

사람들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접하는 현상이나 사건에 내재된 인과적 관계를 추론하곤 한다. 인과추론은 사건을 기준으로 시간적으로 어떤 방향의 추론을 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사건에 시간적으로 선행했던 원인을 추론하는 ‘귀인’ 과정이고, 다른 한 가지는 사건 후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하는 ‘예측’ 과정이다(설선혜, 최인철, 2009). 인과추론의 양상은 같은 현상, 또는 같은 사건일지라도 사람들마다 각기 다양하다. 예를 들면, 2000년대 초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우 다양한 요인들을 이 사건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가 부도덕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노벨상에 대한 그의 욕망 때문에”와 같은 직접적이고 개인내적인 요인들부터, “국제적 인정에 대한 한국 사회의 열망” 및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와 같은 간접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요인들까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사람들마다 거론하는 원인들은 서로 달랐으며 그 범위 또한 광범위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결과 추론의 양상 역시 매우 다양하다. 2010년대 초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선별적 무상급식의 수혜 학생들이 눈칫밥을 먹지 않게 될 것”과 같은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에 대한 예측부터, “공교육의 황폐화”와 같은 보다 간접적인 결과에 대한 예측까지, 정책이 미칠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거론되는 결과들은 범위 면에서 매우 다양했다.

이처럼, 사람들이 어떤 사건의 원인 혹은 결과를 서로 다르게 추론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비교문화 연구들은 문화성향, 또는 개인의 인지양식(cognitive style)에 따라 사람들의 인과추론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Choi, Koo, & Choi, 2007; Choi, Nisbett, & Norenzayan, 1999; Ji, Nisbett, & Su, 2001). 이들에 따르면 서양인들과 동양인들은 서로 다른 인지양식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인과적 추론을 하는 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서양 문화권의 사람들은 “세상이 서로 분리된 독립적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석적 인지양식(analytic cognition)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종합적 인지양식(holistic cognition)을 가지고 있다(Choi et al., 1999). 따라서 동양인들은 어떤 사건이나 대상을 전체로부터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어렵다고 여기고, 이로 인하여 서양인들보다 더 복잡한 인과모형을 지니게 된다. 그 결과, 원인과 결과를 추론함에 있어서 동양인과 서양인 간에 문화차가 나타난다. 이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원인을 추론할 때 주어진 사건과 다른 여러 대상들 간의 관계를 더 많이 고려하여 원인을 찾고(Lee, Hallahan, & Herzog, 1996; Miller, 1984; Morris & Peng, 1994), 결과를 예측할 때에도 해당 사건과 그 외의 여러 요인들을 더 많이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한다(설선혜, 최인철, 2009; Ji, Nisbett, & Su, 2001; Maddux & Yuki, 2006).

이처럼 두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인지양식을 가짐으로써 보이는 인과추론에서의 차이는, 그들이 추론 후에 내리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Choi & Nisbett, 1998; Choi et al., 1999; Miller, 1984; Morris & Peng, 1994). 예를 들면, 행위자의 행동 원인을 설명할 때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하여 기본적 귀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즉 상황의 힘은 과소평가하고 행위자의 내적 속성을 과대평가하여 판단하는 오류를 덜 범한다

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Choi & Nisbett, 1998; Lee et al., 1996; Morris & Peng, 1994). 동양인들도 행위자의 내적 속성을 행동의 원인 중 하나로 여기기는 하지만, 이들은 서양인들에 비하여 행위자와 관련되거나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더 많이 고려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동양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하여 사후과잉확신 편향(hindsight bias)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들 수 있다(Choi & Nisbett, 2000). 사후과잉확신 편향이란 어떤 사건의 결과를 실제로는 예측할 수 없었지만, 결과를 알고 난 후에는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동양인들이 여러 사건들 및 대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자신이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들이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인지 양식의 차이가 문화권 간 비교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즉, 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문화성향과 인지양식의 개인차가 존재한다(설선훈, 최인철, 2009; 홍승범, 박혜경, 2013; Choi et al., 2007; Kitayama, Ishii, Imada, Takemura & Ramaswamy, 2006; Singelis, 1994; Triandis, 1995). 따라서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성향과 인지양식에 있어서 개인차가 존재하며, 인과추론의 양상에서도 차이가 관찰된다(설선훈, 최인철, 2009; 엄기민, 2010). 종합하면, 인과추론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들은 개인의 인지양식에 따라 인과추론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것이 사건의 원인 및 결과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원인 혹은 결과를 추론하는 것이 추론 후에 내리는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선행 연구들(설선훈, 최인철, 2009;

Choi & Nisbett, 1998; Choi et al., 1999; Miller, 1984; Morris & Peng, 1994)은 개인의 인과적 복잡성이 추론과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추론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들은 많지 않다. 원인을 추론하는 귀인 과정은 이미 발생한 사건만 고려하는 과정이지만, 결과를 추론하는 예측 과정은 이미 발생한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도 함께 고려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결과를 예측하는 추론 과정은 귀인 과정에 비하여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과추론과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고, 특히 결과 추론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원인 추론 관련 연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떤 사건이 미래에 미칠 영향력을 예측하는 것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생각하고 이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 중 어떤 일들은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실지 우유를 마실지 결정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사안들인 반면, 어떤 일들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안들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중요한 회의에 늦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회의 장소에 제시시간에 도착하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과속을 할지, 아니면 늦더라도 제한속도를 지킬지 결정해야 한다. 위의 상황에서 처럼 위험이 내포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결정 후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자신 및 타인에게 물리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위험한 상황을 위험하다고 지각하여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데에 심리학적 접근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순열, 2015a), 위험한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심리적 속성을 밝혀내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일상적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었고, 특히 자신 및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사고 위험이 내포된 의사결정과 그렇지 않은 의사결정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험을 감수하는 의사결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성격(Levenson, 1990; Nicholson, Soane, Fenton-O’Creevy, & Willman, 2005; Soane & Chmiel, 2005; Zuckerman & Kuhlman, 2000), 자아존중감(이종건, 김교집, 2014), 조절초점(정은경, 김봄메, 손영우, 2011), 정서(Arkes, Herren, & Isen, 1988; Isen & Geva, 1987; Mittal & Ross, 1998; Yuen & Lee, 2003), 자기애(윤정선, 임성문, 2015), 인지 욕구와 구조화 욕구(박소영, 정은경, 손영우, 2012; Meertens & Lion, 2008)와 같이, 위험감수 의사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개인적 요인들을 밝혀내었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의사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결과 추론 양상이 위험을 감수하고 내리는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수를 더 많이 예상할수록 책임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 결과(Maddux & Yuki, 2006)를 바탕으로, 결과 추론과 위험 감수 의사결정의 관계가 책임감을 느끼는 정도에 의해 매개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파급효과의 예측

앞서 기술한 무상급식 정책 논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시공간적인 면에서 직·간접적인 대상 또는 현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 즉 사건의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사건의 결과를 추론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결과만을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결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결과들까지 생각하는 등, 파급효과를 보다 광범위하게 예측한다.

파급효과 예측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설선희, 최인철, 2009; Maddux & Yuki, 2006)은 어떤 사람이 파급효과를 작게, 혹은 크게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의 문화성향(개인주의-집단주의 또는 독립성-상호의존성)과 인지양식(분석적-종합적)에 따라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오늘날 서양인들은 대체적으로 개인주의 성향(또는 독립적 자기관)을, 동양인들은 집단주의 성향(또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5). 즉, 동양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인 및 집단과의 관계와 조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타인에 관한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개인의 욕구나 목표보다는 집단의 목표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Maddux와 Yuki(2006)는 서양인들과 동양인들의 파급효과 예측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문화성향에 따라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국립공원이 조성된 후에 나타날 결과들을 자유롭게 기술하

는 과제에서, 일본인들은 미국인들에 비하여 간접적 결과들을 더 많이 기술하였고(연구 2), 자신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수 또한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다(연구 3과 4). 즉,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인들이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미국인들에 비하여 해당 사건의 파급효과를 더 크게 예측하였다.

문화성향과 비슷한 맥락에서 동양인들과 서양인들은 가지고 있는 인지양식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 역시 파급효과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설선희, 최인철, 2009; 엄기민, 2010). 구체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양식에서의 차이는 지각에서의 주의 할당, 변화 지각 및 인과성과 같은 인지 과정에서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면, 요소들 간의 관계를 가정하는 동양인들은 각 요소들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서양인들과 달리, 장면의 중심이 되는 대상 이외에도 배경이나 다른 대상들 간의 관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Ji, Peng, & Nisbett, 2000; Masuda & Nisbett, 2001), 변화의 추세를 예측할 때에도 지속적이고 유동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Ji et al., 2001). 또한, 인과적 관계를 설명할 때 동양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하여 더 복잡한 인과성을 가정하고, 사건의 주체와 환경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초점을 더 많이 두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떤 사건에 대한 원인을 찾을 때, 서양인들은 사건 주체의 개인적 특성으로 원인을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동양인들은 더 넓고 복잡한 요인들로 원인을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다(Choi et al., 2007). 이처럼 종합적 사고자들이 분석적 사고자들에 비하여 더 간접적인 부분들을 원인으로 고려한다면, 결과를 추론함에 있어서도 사건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결과들을 더 많이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종합적 사고자들이 분석적 사고자들에 비하여 대상 및 사건들 간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인식하므로, 어떤 사건에 의해 발생할 결과들을 생각할 때에도 더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설선희와 최인철(2009)은 한국인들을 비교한 문화 내 연구

(연구 1)와 한국인과 미국인을 비교한 문화 간 연구(연구 2)를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이들은 파급효과 예측 양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거하기 과제(Choi, Dalal, Kim-Prieto, & Park, 2003)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은 주어진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결과들의 목록을 받고, 자신이 보기에 이 사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항목을 제거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에 비하여 주어진 사건의 간접적인 결과들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Maddux와 Yuki(2006)의 연구 결과가 반복 검증되었다(연구 2).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문화 내 연구에서는 분석적-종합적 사고 척도(Analysis-Holism Scale, AHS)를 사용하여 개인의 인지양식을 측정하고 파급효과 예측 정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문화 간 연구들과 동일하게, 종합적 사고자가 분석적 사고자에 비하여 주어진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결과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1). 문화 내 차이를 살펴본 또 다른 연구(엄기민, 2010)에서는 분석적-종합적 사고 척도(AHS)의 하위 요인인 '인과적 사고' 요인과 파급효과 예측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참가자들은 어느 가상의 인물이 스스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읽고, 이 결정이 가상 인물의 미래(1년 후, 2년 후, 5년 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에 대하여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높은 인과적 사고 집단의 참가자들은 낮은 인과적 사고 집단의 참가자들에 비하여 의사결정의 시간적 파급효과를 더 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파급효과 예측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성향 및 인지양식이 파급효과 예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개인주의 성향 및 분석적 인지양식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여, 집단주의 성향 및 종합적 인지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건의 파급효과를 더 크게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

2. 파급효과의 예측, 지각된 책임감 및 위험감수 의사결정

대부분의 의사결정에는 이것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불확실성을 다루는 한 가지 방법은 행동의 결과들을 예상하고 이에 대해 평가해보는 것인데, 이러한 예상과 평가의 과정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행동에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Zeelenberg, van Dijk, Manstead, & van der Pligt, 2000).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중요한 회의에 늦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회의 장소까지 직접 운전을 해서 가야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는 두 가지 선택지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회의 장소에 제시간에 도착하기 위하여 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과속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늦더라도 안전하게 제한속도를 지켜서 운전을 하는 것이다. 전자를 선택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험 요인은 과속으로 인하여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이고, 보다 간접적인 위험 요인은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과속하는 자신의 행동이 보행자, 혹은 시민들의 교통법 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위험 또한 더 많이 예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가?

위의 물음에 대하여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는 연구는 없으나, 책임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하는 것이 책임감을 매개로 위험을 감수하는 의사결정을 덜 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집단 책임(collective culpability)에 대한 연구들은 집단 책임이 서양 문화권보다 동양 문화권에 더 널리 퍼져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Chao, Zhang, & Chiu, 2008; Zemba, Young, & Morris, 2006). 구체적으로, 중국인들은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그 행동의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집단 구성원에게까지 일반화하였고(Chiu & Hong, 1992), 일본

인들은 미국인들에 비하여 사건과 간접적인 거리에 있는 대상에까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Zemba et al., 2006). 이러한 결과를 앞서 기술한 문화성향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집단주의 성향 및 종합적 인지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주의 성향 및 분석적 인지양식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여 책임의 소재를 더 광범위하게 인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결과가 Maddux와 Yuki(2006)의 연구에서 관찰되었는데, 이 연구에서 일본인들은 미국인들에 비하여 사건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다(연구 3과 4). 구체적으로, 연구참가자들은 주어진 사건을 자신이 일으켰다고 가정하고,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감 및 부정적 정서를 얼마나 느끼는지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인들은 사건 이후 나타날 간접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미국인들보다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부정적 정서 역시 더 강하게 느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요컨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집단주의 성향 및 종합적 인지양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야기한 사건의 결과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책임감은 위험감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주의 문화성향 및 분석적 인지양식을 지닌 사람들은 단일 사건을 독립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간접적인 결과에는 주의를 덜 기울인다. 반면 집단주의 문화성향 및 종합적 인지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사건이 다른 대상 및 사건들과 서로 관련된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추후 결과들의 복잡한 관계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지각한다. 이로 인하여 간접적인 결과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크고, 그로 인해 간접적인 결과들에 대하여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Maddux & Yuki, 2006). 또한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개인주의 문화성향이 강한 사람들에 비하여 타인과의 관계, 집단의 조화 및 안녕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한 사건들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더 크게 지각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 역시 더 많이 느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추론해보면, 과급효과를 크게 예측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이 초래할 결과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의 수를 더 많이 예측하고,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더 크게 지각하게 되어,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보다는 안전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과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덜 하고, 이러한 관계가 책임감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는 모든 상황에 걸쳐 일관되지 않고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Byrnes, Miller, & Schafer, 1999; MacCrimmon & Wehrung, 1990; Weber, Blais, & Betz, 2002). 예컨대, Blais와 Weber(2006)는 영역 특수적 위험감수(A Domain-Specific Risk-Taking; DOSPERT) 척도(Weber et al., 2002)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는지 살펴보았다. 이 척도는 다섯 가지 영역(윤리, 재정, 건강/안전, 오락 및 사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시된 상황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위험행동을 할 가능성 등을 측정한다. 분석 결과, 사람들이 위험을 지각하는 정도와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은 영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건강/안전 영역에서 위험을 가장 크게 지각했고, 사회 영역에서 가장 작게 지각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은 윤리 영역에서 가장 낮았고 사회 영역에서 가장 컸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다르게 내리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 없다. 하지만 일상생활의 영역별로 위험을 지각하는 정도와 의사결정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으로 미루어, 과급효과를 예측하는 것과 위험감수 의사결정의 관계 역시 영역

에 따라 다를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리적 상해 위험이 낮은 의사결정 사안에서는 파급효과의 예측과 위험감수 의사결정의 관계가 전술한 것과 다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신 및 타인의 상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신체적 손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안의 위험성이 직관적으로, 심각하게 지각될 것이다. 따라서 행동의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사안의 위험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되어 위험을 감수하는 의사결정을 덜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자신 및 타인의 상해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신체적 손상이 없거나 간접적일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사안에 내재된 위험이 직관적으로, 심각하게 지각될 가능성이 낮다. 예컨대, 수입의 일정 부분을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상황의 경우, 재정상의 위험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큰 신체적 손상은 예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동(주식에 투자하기)의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하더라도 직관적으로 느끼는 사안의 위험성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결과,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상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과 함께 물리적 상해 가능성이 낮은 상황도 포함하여,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Ⅲ.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과급효과의 예측, 지각된 책임감 및 위험감수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과급효과의 예측이 지각된 책임감을 통해 위험감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림 1에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 문제 1. 과급효과의 예측, 지각된 책임감 및 위험감수 의사결정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1. 과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의사결정 후 발생할 일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낄 것이다.

가설 1-2. 책임감을 많이 느낄수록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덜 할 것이다.

가설 1-3. 과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덜 할 것이다.

연구 문제 2. 과급효과의 예측과 위험감수 의사결정의 관계를 지각된 책임감이 매개하는가?

가설 2-1. 과급효과의 예측과 위험감수 의사결정의 관계를 지각된 책임감이 매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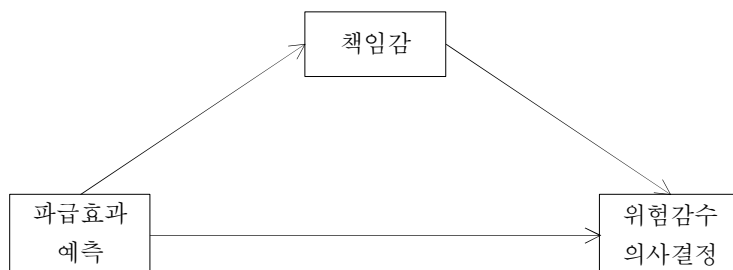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IV. 연구 방법

1. 연구참가자

본 연구는 편의표집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16곳에 재학 중인 학부생 17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9명을 제외한 총 161명(남자 84명, 여자 76명, 성별 미확인 1명)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연구참가자들의 연령 범위는 18-28세였고, 평균 연령은 21.91세였다($SD=2.64$).

2. 측정 도구

선행 연구에서 과급효과의 예측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건에 의해 영향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의 수를 기입하는 방법(Maddux & Yuki, 2006), (2) 제거하기 과제(설선희, 최인철, 2009), (3) 시나리오 상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에 대하여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는 방법(엄기민, 2010). 본 연구에서는 (1)과 (3)의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시나리오와 문항을 사용하였다. (2)의 경우는 한 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제거 목록이 약 100개 정도 제시되기 때문에 과급효과 범위에 따른 책임감을 측정하기에 부적합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서 다수의 시나리오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엄기민, 2010; 정은경 등, 2011; Maddux & Yuki, 2006; Weber, Blais, & Betz, 2002)를 참고하

여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에 대한 파급효과의 예측, 책임감 및 위험감수 의사결정에 관한 문항을 직접 제작하였다.

1) 시나리오

위험감수 의사결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하여 Weber 등(2002)이 개발한 영역 특수적 위험감수 척도의 문항을 참고하였다. 이 척도는 위험감수의 영역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개발된 리커트 척도이다. 영역은 윤리, 재정, 건강/안전, 오락, 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영역에는 위험 행동에 대한 문항(상황) 6개가 포함된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위험 영역 중에서도 사고의 가능성이 있어 물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따라서 30개의 문항 중에서, 사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자신 및 타인에게 물리적인 손상을 주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 문항 두 개를 선택하였다. 선별된 문항은 건강/안전 영역의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하기”(헬멧 시나리오)와 오락 영역의 “내 실력을 넘어서는 비탈 코스에서 스키타고 내려가기”(스키 시나리오)이다. 또한 파급효과의 예측과 위험감수 의사결정의 관계가 물리적인 사고와 관련이 낮은 영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두 개의 문항을 추가적으로 선택하였다. 선별된 문항은 윤리 영역의 “타인의 성과를 나의 것인 척하기”(윤리 시나리오)와 재정 영역의 “연봉의 10%를 새로운 벤처사업에 투자하기”(재정 시나리오)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제작된 시나리오는 총 4개였고, 물리적 손상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들과 낮은 시나리오들의 제시 순서는 연구참가자 간 상쇄평형화 되었다.

시나리오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정은경 등(2011)에서 사용된 시나리오 예제를 참고하였다. 시나리오에는 각 영역에 따른 위험요소와 이를 감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시된다. 정은경 등(2011)에서 사용된 시나리오 예제는 부록 1에 제시되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네 개의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문항들은 부록 2에 제시되었다. 시나리오의 예는 다음과 같다.

헬멧 시나리오: 귀하는 오늘 늦잠을 자는 바람에 중요한 업무 약속에 늦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귀하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순간, 귀하는 헬멧을 집에 두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집은 6층이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점검으로 인해 집까지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귀하는 집에 올라가 헬멧을 가져올지, 아니면 헬멧 없이 약속 장소까지 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2) 위험 지각

연구참가자들은 시나리오에 제시된 상황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되는지 리커트 10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였다(예: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이 안전 면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위험하지 않다, 10: 매우 위험하다).

3) 위험감수 의사결정

위험감수 의사결정은 두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한 가지는 양자택일 문항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안전을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지 선택하는 문항이다(예: “헬멧 없이 약속 장소로 간다” vs. “집에 가서 헬멧을 가져온다”). 다른 한 가지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어야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를 묻는 문항이다(예: “나는 헬멧 없이 운전하여 약속 장소에 늦지 않게 도착할 가능성이 _____% (이상)이어야,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할 것이다”). 두 번째 문항의 경우 분석 시 역채점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값이 작을수록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낮고 안전을 더 많이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과급효과 예측

Maddux와 Yuki(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을 참고하여 세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수, 과급효과의 다양성, 과급효과의 영향력). 모든 문항은 참가자가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가정했을 때 이 행동의 과급효과를 예측하여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먼저, 참가자들은 이 행동이 직·간접적으로 약 몇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지 기입하였다(예: “만약 귀하께서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면, 귀하의 행동이 직·간접적으로 대략 몇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다음으로, 의사결정이 가져올 일들의 다양성과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급효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들과 문항들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 10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10: 매우 그렇다). 항목들은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과급거리가 가까운 항목부터 먼 항목까지 총 5개로 제시되었다. 위에 제시한 헬멧 시나리오를 예로 들면, 과급효과의 대상 다섯 가지는 “①나, ②오토바이 및 자동차 운전자들, ③보행자들, ④시민들의 교통법 준법정신, ⑤우리나라의 오토바이 안전모 법률”로 구성되었다. 다양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과급효과의 대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와 같이 총 5개로 구성되었다. 영향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과급효과의 대상]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같이 총 5개로 구성되었다.

5) 책임감

Maddux와 Yuki(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5개의 파급효과 대상과 관련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얼마나 느끼는지 묻는 문항들을 제시하고,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 10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예: “[파급효과의 대상]과 관련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 1점: 전혀 아니다, 10점: 매우 그렇다)

6) 인구통계학적 정보

성별, 나이, 학년 및 전공을 기입하도록 하였고,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오토바이 운전 경험, 벤처기업 투자 경험, 스키 혹은 스노보드 경험, 본인의 수입원 및 직계 가족의 연간 소득)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절차

연구참가자들은 본 연구의 목적이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라고 소개받은 후 질문지를 받았다. 시나리오 및 해당 시나리오에 대한 문항들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총 4개의 세트가 제시되었고, 4개의 세트가 제시되는 순서는 참가자 간 상쇄평형화 되었다. 참가자들은 시나리오를 읽은 후, 위험을 감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안전을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응답한 후,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어야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를 예측하는지에 대해 응답하고(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수, 파급효과의 다양성, 파급효과의 영향력),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책임감을 얼마나 느끼는지 응답하였다. 참가자가 4개의 세트 및 인구통계학적 문항들에 응답하고 나면 연구자가 질문지를 회수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로 1,500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4. 분석 방법

SPSS 1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참가자들의 인적특성 및 문항 응답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문항들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가설 1-1, 1-2, 1-3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 차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V. 연구 결과

1. 시나리오별 응답에 대한 기술통계치

본 분석에 앞서 과급효과의 예측을 측정한 세 문항들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문항들을 평균하기 전에 먼저 단답식 문항(위험감수 의사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의 수)에 대한 응답 값들의 분산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만약 연구참가자가 평균으로부터 3.5 표준편차 이상의 값을 보고한 경우에는 이를 극단치로 간주하고 [평균+3.5표준편차] 값으로 교정하였다 (Maddux & Yuki, 2006). 극단값을 보고한 연구참가자의 수는 헬멧 시나리오, 윤리 시나리오 및 재정 시나리오에서 각 3명, 스키 시나리오에서 1명이었다. 교정 후에는 응답값들의 분포를 정상분포에 가깝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로그변환 하였다. 로그변환 전의 편포도(skewness)는 5.69~11.12, 첨도(kurtosis)는 32.86~130.25였으나, 변환 후의 편포도는 0.91~1.57, 첨도는 1.06~3.31이었다. 변환 후 각 시나리오별 과급효과 예측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헬멧 시나리오에서 .78, 스키 시나리오에서 .75, 윤리 시나리오에서 .66, 재정 시나리오에서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분석에는 과급효과 예측 점수로서 세 문항을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각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참가자들의 지각된 위험, 과급효과의 예측, 지각된 책임감 및 위험감수 의사결정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참가자들은 시나리오의 영역에 따라 위험감수 행동의 위험성을 다르게 지각하고, 의사결정도 다르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시나리오에 제시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의 위험성은 스키 시나리오에서 가장 낮게 지각하고($M=5.77$, $SD=2.62$), 헬멧 시나리오에서 가장 높게 지각한 것으로

표 1. 시나리오별 응답에 대한 기술통계치 (N=161)

	헬멧 시나리오	스키 시나리오	윤리 시나리오	재정 시나리오
지각된 위험	8.27 (1.86)	5.77 (2.62)	7.41 (2.18)	6.24 (2.22)
파급효과 예측	4.69 (1.64)	3.91 (1.49)	4.75 (1.51)	4.42 (1.38)
지각된 책임감	6.93 (1.89)	5.54 (2.05)	7.08 (1.82)	4.65 (1.80)
양자택일 의사결정 (위험 vs. 안전)	55 vs. 106	122 vs. 39	22 vs. 139	89 vs. 72
위험감수 의사결정	21.40 (22.82)	47.25 (27.90)	12.52 (18.70)	27.56 (21.20)

주 1. 지각된 위험, 파급효과 예측, 지각된 책임감 및 안전추구 의사결정의 값: 평균 (표준편차)

주 2. 양자택일 의사결정의 값: 위험한 의사결정의 빈도 vs. 안전한 의사결정의 빈도

나타났다($M=8.27$, $SD=1.86$). 다음으로 의사결정을 살펴본 결과, 양자택일 문항의 경우 스키 시나리오(위험감수 122명 vs. 안전선택 39명)와 재정 시나리오(위험감수 89명 vs. 안전선택 72명)에서는 위험을 감수한 의사결정을 내린 연구참가자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지만, 헬멧 시나리오(위험감수 55명 vs. 안전선택 106명)와 윤리 시나리오(위험감수 22명 vs. 안전선택 139명)에서는 안전한 의사결정을 내린 연구참가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와 유사하게, 연구참가자들은 스키 시나리오($M=47.25$, $SD=27.90$)에서 위험을 가장 많이 감수했고, 재정 시나리오($M=27.56$, $SD=21.20$), 헬멧 시나리오($M=21.40$, $SD=22.82$), 윤리 시나리오($M=12.52$, $SD=18.70$) 순으로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안전 영역에서 위험 지각을 가장 크게 하고, 윤리 영역에서 위험 감수를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Blais & Weber, 200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동의 파급효과는 스키 시나리오에서 가장 작게 예측하고($M=3.91$, $SD=1.49$), 윤리 시나리오에서 가장 크게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M=4.75$, $SD=1.51$)¹⁾, 책임감은 재정 시나리오

에서 가장 적게 느끼고($M=4.65$, $SD=1.80$), 윤리 시나리오에서 가장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M=7.08$, $SD=1.82$).

-
- 1) 과급효과의 예측을 단답식으로 측정한 문항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문항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이와 동일하였다. 구체적으로, 단답식 문항에서의 과급효과 예측은 스키 시나리오에서 가장 작고($M=27.58$, $SD=112.47$, $Min=0$, $Max=1,000$) 윤리 시나리오에서 가장 컸으며($M=360.83$, $SD=2,087.03$, $Min=0$, $Max=15,301$), 리커트 문항에서도 스키 시나리오에서 가장 작고($M=4.83$, $SD=1.93$) 윤리 시나리오에서 가장 컸다($M=6.01$, $SD=1.85$).

2. 과급효과의 예측, 지각된 책임감 및 위험감수 의사결정의 관계

1) 물리적 위험이 높은 시나리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과급효과의 예측, 지각된 책임감 및 위험감수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 및 t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관찰되었다(표 2). 물리적 상해 가능성이 높은 두 시나리오(헬멧 시나리오와 스키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시나리오에서 과급효과의 예측과 지각된 책임감의 상관이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헬멧 시나리오에서 $r=.62, p<.001$; 스키 시나리오에서 $r=.68, p<.001$), 과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의사결정 후 발생할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²⁾ 둘째, 지각된 책임감과 위험감수 의사결정 간의 상관이 모두 부적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헬멧 시나리오에서 $r=-.30, p<.001$; 스키 시나리오에서 $r=-.39, p<.001$), 책임감을 강하게 느낄수록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덜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자택일 응답을 기준으로 위험감수 의사결정 집단과 안전추구 의사결정 집단의 지각된 책임감을 비교한 결과, 위험을 감수한 의사결정을 내린 참가자들이 느낀 책임감보다 안전한 결정을 내린 참가자들이 느낀 책임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구체적으로, 헬멧 시나리오에서 안전한 의사결정을 내린 참가자들($n=106$)이 느낀 책임감($M=7.49, SD=1.74$)이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내린 참가자들($n=55$)이 느낀 책임감($M=5.85, SD=1.70$)보다 더 높았다,

2) 과급효과의 예측을 단답식으로 측정한 문항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문항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단답식 문항과(헬멧 시나리오에서 $r=.30, p<.001$; 스키 시나리오에서 $r=.35, p<.001$) 리커트 문항(헬멧 시나리오에서 $r=.63, p<.001$; 스키 시나리오에서 $r=.69, p<.001$) 모두 지각된 책임감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 헬멧 시나리오 및 스키 시나리오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N=161)

	1	2	3	4	5	6	7	8	9	10	11
1. 성별		-.16*	-.19*	-.13	-.34***	-.04	-.04	.07	.10	.07	-.03
2. 나이	-.16*		.29***	.17*	.13	.06	-.01	.13	.15	.08	-.04
3. 경험(오토바이운전)	-.19*	.29***		.18*	.06	.11	-.03	-.01	-.02	.01	.06
4. 경험(투자)	-.13	.17*	.18*		-.00	.16*	-.23**	-.05	-.15	.11	.20*
5. 경험(스키/스노보드)	-.34***	.13	.06	-.00		.22**	-.01	.09	-.05	.05	.14
6. 연간소득	-.04	.06	.11	.16*	.22**		.00	.05	-.06	.01	-.01
7. 지각된 위험	-.06	.06	.01	-.00	.20*	-.01		.38***	.39***	-.54***	-.70***
8. 과급효과예측	.16*	-.04	-.07	-.33***	-.01	-.11	.51***		.68***	-.33***	-.31***
9. 지각된 책임감	-.02	.12	-.03	-.23**	.12	-.13	.45***	.62***		-.24**	-.39***
10. 의사결정(양자택일)	.22**	-.06	.08	.15*	-.24**	.06	-.51***	-.46***	-.41***		.55***
11. 의사결정(위험감수)	.06	-.05	.20*	.20*	-.03	.03	-.34***	-.32***	-.30***	.31***	

주 1. 대각선 위는 스키 시나리오, 대각선 아래는 헬멧 시나리오; 주 2. * $p < .05$, ** $p < .01$, *** $p < .001$.

주 3. 성별: 남자=0, 여자=1로 코딩; 주 4. 경험: 없음=0, 있음=1로 코딩; 주 5. 양자택일: 안전한 결정=0, 위험한 결정=1로 코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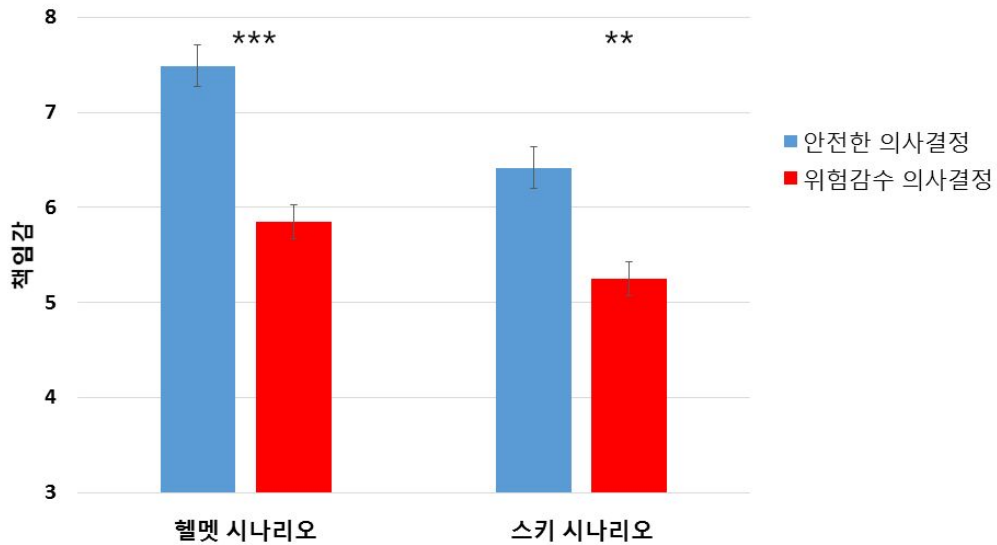


그림 2. 안전한 의사결정 집단과 위험감수 의사결정 집단의 지각된 책임감 차이 (헬멧 시나리오, 스키 시나리오)

$t(159)=5.71, p<.001$. 또한 스키 시나리오에서 안전한 의사결정($n=39$)을 내린 참가자들이 느낀 책임감($M=6.42, SD=1.90$)이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내린 참가자들($n=122$)이 느낀 책임감($M=5.25, SD=2.02$)보다 더 높았다, $t(159)=3.16, p<.01$. 마지막으로, 두 시나리오에서 과급효과의 예측과 위험감수 의사결정의 관계가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헬멧 시나리오에서 $r=-.32, p<.001$; 스키 시나리오에서 $r=-.31, p<.001$), 과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덜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³⁾ 그리고 양자택일 응답을 기준으로 위험감수 의사결정 집단과 안전추구 의사결정 집단의 과급효과 예측

3) 과급효과의 예측을 단답식으로 측정한 문항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문항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단답식 문항과(헬멧 시나리오에서 $r=-.20, p<.05$; 스키 시나리오에서 $r=-.25, p<.01$) 리커트 문항(헬멧 시나리오에서 $r=-.32, p<.001$; 스키 시나리오에서 $r=-.29, p<.001$) 모두 위험감수 의사결정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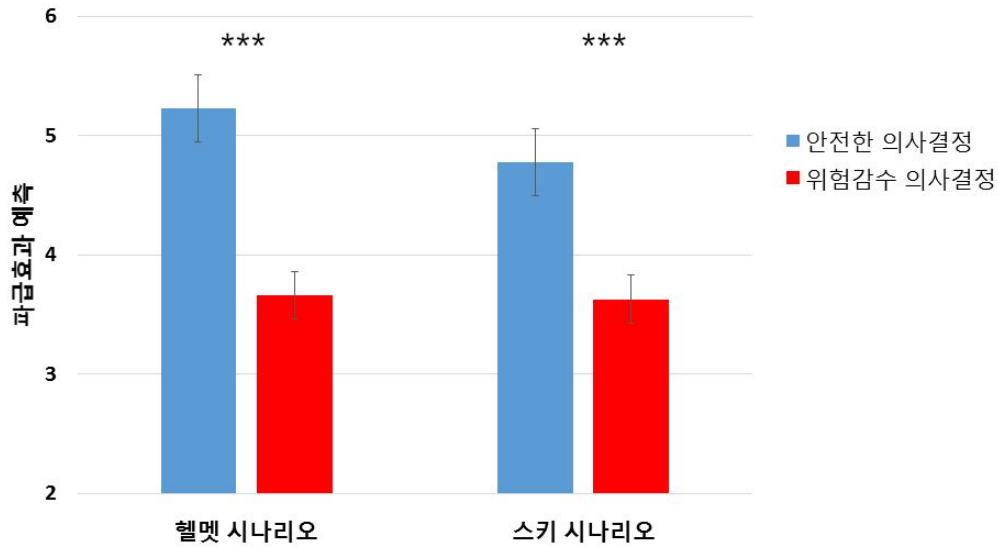


그림 3. 안전한 의사결정 집단과 위험감수 의사결정 집단의 파급효과 예측 차이 (헬멧 시나리오, 스키 시나리오)

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내린 참가자들이 예측한 파급효과보다 안전추구 의사결정을 내린 참가자들이 예측한 파급효과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3). 구체적으로, 헬멧 시나리오에서 안전한 의사결정을 내린 참가자들이 예측한 파급효과($M=5.23, SD=1.63$)가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내린 참가자들이 예측한 파급효과($M=3.66, SD=1.09$)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148.89)=7.31, p<.001$. 또한 스키 시나리오에서 안전한 의사결정을 내린 참가자들이 예측한 파급효과($M=4.78, SD=1.30$)가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내린 참가자들이 예측한 파급효과($M=3.63, SD=1.44$)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159)=4.46, p<.001$.

2) 물리적 위험이 낮은 시나리오

과급효과의 예측, 지각된 책임감 및 위험감수 의사결정의 관계가 물리적인 사고와 관련이 낮은 영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두 개의 시나리오(윤리 시나리오와 재정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시나리오에서 과급효과의 예측과 책임감의 상관관계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윤리 시나리오에서 $r=.56, p<.001$; 재정 시나리오에서 $r=.48, p<.001$), 과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의사결정 후 발생할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⁴⁾ 둘째, 책임감과 위험감수 의사결정의 상관관계가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윤리 시나리오에서 $r=-.23, p<.01$; 재정 시나리오에서 $r=-.22, p<.01$), 책임감을 강하게 느낄수록 위험을 감수한 의사결정을 덜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자택일 응답을 기준으로 위험감수 의사결정 집단과 안전추구 의사결정 집단의 책임감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의 참가자들이 느낀 책임감의 차이는 윤리 시나리오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그림 4). 구체적으로, 윤리 시나리오에서 안전한 의사결정을 내린 참가자들($n=139$)이 느낀 책임감($M=7.24, SD=1.79$)은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내린 참가자들($n=22$)이 느낀 책임감($M=6.05, SD=1.71$)보다 더 높았다, $t(159)=2.91, p<.01$. 반면 재정 시나리오에서 안전한 의사결정을 내린 참가자들($n=72$)이 느낀 책임감($M=4.71, SD=2.03$)과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내린 참가자들($n=89$)이 느낀 책임감($M=4.59, SD=1.47$)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57.21)=0.41, p=.68$. 마지막으로, 두 시나리오에서 과급효과의 예측과

4) 과급효과의 예측을 단답식으로 측정된 문항과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문항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단답식 문항은 책임감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반면($r_s=.12$ 와 $.03$, 모두 $n.s.$) 리커트 문항은 책임감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윤리 시나리오에서 $r=.64, p<.001$; 재정 시나리오에서 $r=.59, p<.001$).

표 3. 윤리 시나리오 및 재정 시나리오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N=161)

	1	2	3	4	5	6	7	8	9	10	11
1. 성별		-.16*	-.19*	-.13	-.34***	-.04	.18*	.05	.33***	-.25**	-.29***
2. 나이	-.16*		.29***	.17*	.13	.06	-.14	-.12	-.09	.19*	-.12
3. 경험(오토바이운전)	-.19*	.29***		.18*	.06	.11	-.01	-.12	.06	.10	-.02
4. 경험(투자)	-.13	.17*	.18*		-.00	.16*	-.09	-.09	-.03	-.02	.02
5. 경험(스키/스노보드)	-.34***	.13	.06	-.00		.22**	-.00	-.01	-.13	.01	-.00
6. 연간소득	-.04	.06	.11	.16*	.22**		-.16*	-.11	-.18*	.20*	-.12
7. 지각된 위험	-.01	.12	.06	-.03	.10	.06		.22**	.31***	-.57***	-.36***
8. 파급효과예측	.07	.08	.02	-.12	.02	.11	.46***		.48***	-.11	-.11
9. 지각된 책임감	.07	.16	.13	-.07	-.09	-.13	.43***	.56***		-.03	-.22**
10. 의사결정(양자택일)	-.09	-.10	.01	.16*	-.03	.12	-.37***	-.13	-.23**		.22**
11. 의사결정(위험감수)	-.05	.02	-.17*	.04	-.07	-.10	-.19*	-.26***	-.23**	.24**	

주 1. 대각선 위는 재정 시나리오, 대각선 아래는 윤리 시나리오; 주 2. * $p < .05$, ** $p < .01$, *** $p < .001$.

주 3. 성별: 남자=0, 여자=1로 코딩; 주 4. 경험: 없음=0, 있음=1로 코딩; 주 5. 양자택일: 안전한 결정=0, 위험한 결정=1로 코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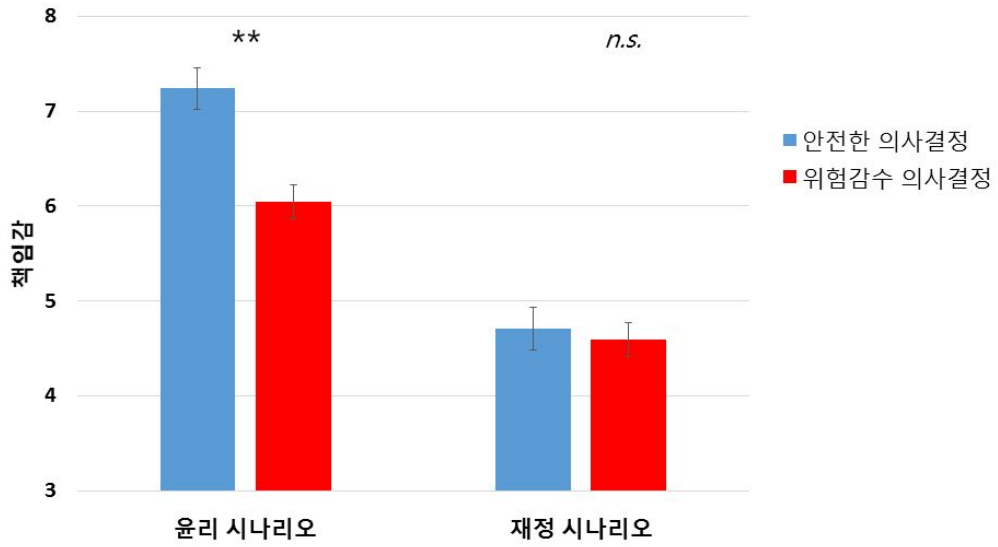


그림 4. 안전한 의사결정 집단과 위험감수 의사결정 집단의 지각된 책임감 차이 (윤리 시나리오, 재정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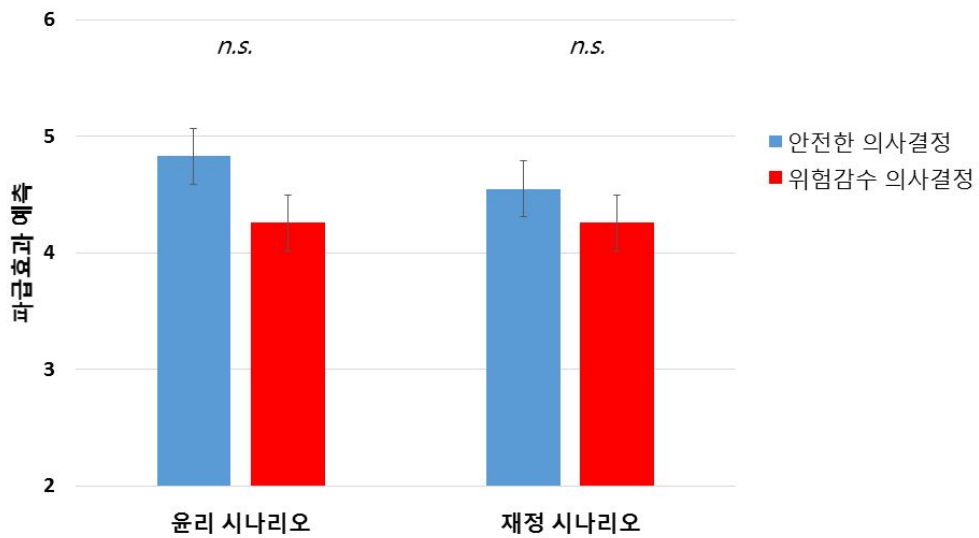


그림 5. 안전한 의사결정 집단과 위험감수 의사결정 집단의 파급효과 예측 차이 (윤리 시나리오, 재정 시나리오)

위험감수 의사결정의 관계는 윤리 시나리오($r=-.26, p<.001$)에서만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 시나리오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r=-.11, p=.68$).⁵⁾ 그리고 양자택일 응답을 기준으로 위험감수 의사결정 집단과 안전추구 의사결정 집단의 과급효과 예측 정도를 비교한 결과(그림 5), 두 시나리오 모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_{\text{윤리}}(159)=1.65, p_{\text{윤리}}=.10, t_{\text{재정}}(159)=1.33, p_{\text{재정}}=.19$.

5) 과급효과의 예측을 단답식으로 측정한 문항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문항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단답식 문항은 위험감수 의사결정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반면($r_s=-.05$ 와 $-.03, n.s.$) 리커트 문항은 윤리 시나리오에서만 위험감수 의사결정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윤리 시나리오에서 $r=-.28, p<.001$; 재정 시나리오에서 $r=-.14, n.s.$).

3. 과급효과의 예측과 위험감수 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지각된 책임감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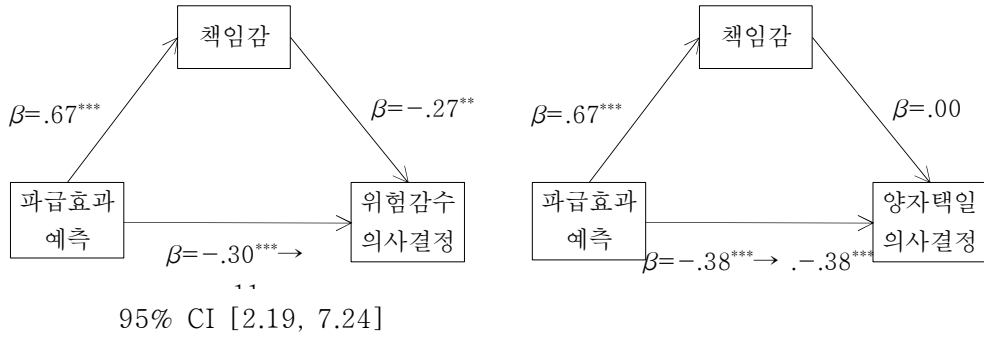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과급효과의 예측과 위험감수 의사결정의 관계를 지각된 책임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에 따르면, (1) 과급효과의 예측이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예측하고, (2) 과급효과의 예측이 지각된 책임감을 예측하며, (3) 과급효과의 예측이 위험감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했을 때 지각된 책임감이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예측하고, (4) 지각된 책임감이 위험감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했을 때 과급효과의 예측이 위험감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경우, 과급효과의 예측과 위험감수 의사결정의 관계를 지각된 책임감이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성별, 나이, 경험, 직계가족 연간소득)을 통제 변수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 과급효과 예측 변수를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000개의 표본과 95% 신뢰구간을 설정한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한 매개효과는 스키 시나리오에서만 관찰되었다(그림 6).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과급효과의 예측이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예측하고 ($\beta = -.30, p < .001$), (2) 과급효과의 예측이 지각된 책임감을 예측하며 ($\beta = .67, p < .001$), (3) 과급효과의 예측이 위험감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했을 때 지각된 책임감이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예측하고 ($\beta = -.27, p < .01$), (4) 지각된 책임감이 위험감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했을 때 과급효과의 예측이 위험감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아 ($\beta = -.11, p = .24$), 지각된 책임감이 과급효과의 예측과 위험감수 의사결정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랩 결과 이러한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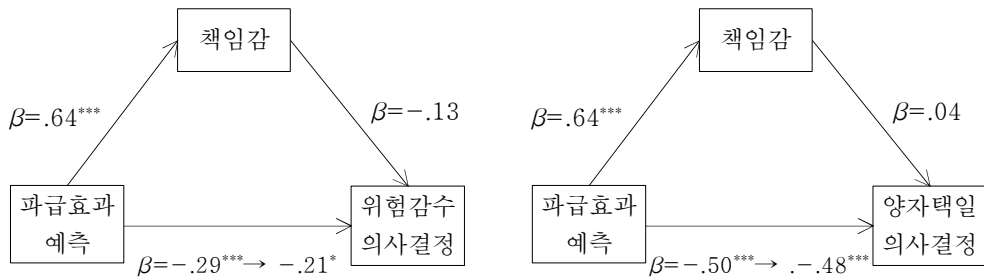
[2.19, 7.24]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행동 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이로 인해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덜 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 다른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1)과 (2)의 요건이 충족된 경로는 스키 시나리오, 헬멧 시나리오 및 윤리 시나리오에서 관찰되었다. 그러나 (3)과 (4)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키 시나리오>



<헬멧 시나리오>



<윤리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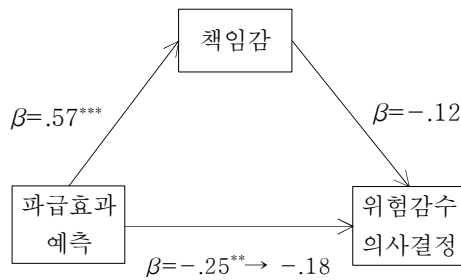


그림 6. 과급효과 예측과 위험감수 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지각된 책임감의 매개 효과

VI. 논의

본 연구의 주목표는 물리적 위험이 내포된 사안에 대하여 위험감수 행동의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하는 것이 지각된 책임감 및 위험감수 의사결정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는 데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의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덜 하는지 알아보았고, 이러한 관계가 의사결정 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에 의해 매개되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물리적 위험이 내포된 사안뿐만 아니라 물리적 위험이 내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탐색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표들에 비추어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은 행동의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의사결정 후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의사결정 사안에 물리적 위험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관찰되었다. 즉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서로 다른 영역들에서, 자신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했을 때의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의사결정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Maddux와 Yuki(2006)의 연구에서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하는 동양인들이 파급효과를 작게 예측하는 서양인들에 비하여 자신이 어떤 부정적인 사건을 일으켰다고 가정했을 때 사건의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한 것과 일관된 결과이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낄수록 위험을 감수한 의사결정을 덜 하고 안전한 의사결정을 내리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관찰되었는데, 예외적으로 재정 시나리오의 양자택일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다른 시나리오들에 비하여 재정 시나리오의 내용이 연구 참가자들의

직업 특성과 잘 상응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스키, 헬멧 및 윤리 시나리오의 내용은 참가자들이 일반적으로 그 상황에 몰입하기 쉬운 내용인 반면, 재정 시나리오의 내용은 대학생인 참가자들이 실제 상황처럼 몰입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시나리오에서도 책임감과 위험감수 의사결정 간의 상관성이 유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낄수록 위험을 감수한 의사결정을 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의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덜 하고 안전한 의사결정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물리적 위험이 내포되지 않은 시나리오에서보다 물리적 위험이 내포된 두 시나리오에서 더 분명하게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물리적 상해 가능성이 낮은 사안에 대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의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것과 관계없이 의사결정을 내렸지만, 물리적 상해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의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덜 하고 안전한 의사결정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의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것과 의사결정 사이의 관계가 일상생활의 영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파급효과의 예측과 위험감수 의사결정의 관계를 책임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 위험이 내포된 스키 시나리오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스키 시나리오에서 연구참가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의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그로 인해 보다 안전한 의사결정을 내리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어떤 사람이 파급효과를 작게, 혹은 크게 예측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설선헤, 최인철, 2009; Maddux & Yuki, 2006)에서 나아

가, 과급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과급효과의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들은 수행된 바 있으나, 과급효과의 예측이 어떠한 변수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엄기민, 2010).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과급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위험을 감수하는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위험감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들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박소영 등, 2012; 정은경 등, 2011; Yuen & Lee, 2003; Zuckerman & Kuhlman, 2000)에 더하여, 과급효과의 예측이라는 변수가 위험감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새로이 밝혔다는 것도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과급효과의 예측과 위험감수 의사결정의 관계가 의사결정 사안이 가진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과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덜 하고 안전한 의사결정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경향은 의사결정의 사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물리적 상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자신의 위험한 의사결정이 가져올 과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위험한 의사결정을 덜 내렸다. 하지만 이와 달리, 물리적 상해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위험한 의사결정의 과급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의사결정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에 대한 책임감 지각과 관련이 있었지만,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관계가 없었다. 이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해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 및 상해 가능성에 대해 예상하고 고려하는 정도가 위험을 감수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일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상해 가능성 및 상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예측하는지를 측정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보다 분명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마지막 의의는 물리적 상해 위험성이 높은 사안에서 과급효과의 예측과 위험감수 의사결정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밝혔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위험한 의사결정의 과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그로 인해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덜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어떤 사람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위험한 의사결정이 가져올 과급효과를 작게 예측함으로써 의사결정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책임감을 적게 느끼기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위험한 행동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적용한다면 실생활에서도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안전 관련 캠페인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한 행동에 대한 과급효과를 크게 예측해보고 그 결과들에 대한 본인의 책임감을 더 많이 자각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면, 안전한 행동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데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순열(2015b)은 운전자의 위험감수성이 4가지 요인(위험에 대한 지각, 위험에 대한 지식, 실제 위험 상황에 대한 경험, 위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운전자의 과속운전 행동에 대한 위험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시청각 자료를 사용한 위험정서 교육이 포함되었는데, 이 자료는 교통사고 발생 시 받게 되는 처벌과 주변인이 받게 되는 고통 및 생활의 변화(즉, 과속운전의 과급효과) 등을 드라마 형태로 제작한 45분 영상물이었다. 기존의 도로교통공단 교육(강의식/지식전달식 교육)에 참여한 운전자들과 비교한 결과, 위험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운전자들은 위험에 대한 민감성이 향상되었다. 이는 과급효과를 크게 예측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실제로 안전 교육 장면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비록 이순열(2015b)의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책임감을 비교하지는 않았으나,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교육 방법(드라마 형태로 제작한 영상물 시청)은 사람들의 책임감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위험한 행동이 자신 및 타인의 고통과 생활 및 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실제와 유사한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지각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스키 시나리오에서와 달리 헬멧 시나리오에서는 책임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이 직접적인 상해를 당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의한 차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스키 시나리오에서는 자신의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직접적인 상해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헬멧 시나리오에서는 자신의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직접적인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자신이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 운전을 했을 때 사고가 난다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요인 자체로 인해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한정된다. 다른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헬멧을 쓰지 않은 자신을 보고 추후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서 사고를 당하게 될 가능성은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자신의 위험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의 수가 위험감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시나리오 내용과 관련된 참가자들의 경험 여부가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스키 또는 스노보드 경험, 오토바이 운전 경험 및 벤처기업 투자 경험을 측정하고 분석 과정에서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했지만, 참가자들이 시나리오의 상황을 직접 겪은 적이 있는지, 또는 시나리오의 상황에 얼마나 몰입하였는지는 측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참가자들이 시나리오에 제시된 상황에 얼마나 충실하게 몰입하여 응답하였는지, 몰입도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수 없었다. 물론 재정 시나리오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나리오가 연구참가자들에게 친숙하거나 또는 겪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시나리오에 충분히 몰입하여 응답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실제로 겪은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살펴보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대신 커버스토리를 사용하거나 실험실 연구를 실시하여, 사람들이 실제 장면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위험을 감수하는 의사결정과 안전한 의사결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실제 상황을 만들고,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측정한 다음, 위험한 의사결정의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로 예측했는지 응답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사람들이 물리적 위험이 높은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때, 위험한 행동의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의사결정 후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결과적으로 위험한 의사결정보다는 안전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사안만을 대상으로 파급효과의 예측과 위험감수 의사결정의 관계를 살펴보았지만, 보다 영향력이 큰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안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위험감수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의사결정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의사결정 후에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과정(예: 후회, 합리화 등)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한 사람과 작게 예측한 사람 중 누가 추후 자신의 의사결정에 더 후회하거나 합리화할 것인지, 이러한 경험이 다음번의 의사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후속 연구 방향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소영, 정은경, 손영우 (2012). 개인적 특성이 위험감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이득과 지각된 손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 51-67.
- 설선혜, 최인철 (2009). 분석적-종합적 인지양식과 과급효과의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 19-38.
- 엄기민 (2010). 과급효과의 예측이 의사결정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정선, 임성문 (2015). 자기애와 위험감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 419-455.
- 이순열 (2015a). 위험감수성 향상을 위한 운전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8, 61-73.
- 이순열 (2015b). 한국사회의 위험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과 제언: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 709-739.
- 이종건, 김교집 (2014). 자기존중감과 위험감수: 시장지향성의 매개역할. 한국경영교육학회, 29, 350-366.
- 정은경, 김봄메, 손영우 (2011). 조절초점이 위험감수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이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 209-221.
- 홍승범, 박혜경 (2013). 문화성향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 125-150.

- Arkes, H. R., Herren, L. T., & Isen, A. M. (1988). The role of potential loss in the influence of affect on risk-taking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42*, 181–193.
- Blais, A. R., & Weber, E. U. (2006). A domain-specific risk-taking (DOSPERT) scale for adult population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1*, 33–47.
- Byrnes, J. P., Miller, D. C., & Schafer, W. D. (1999). Gender differences in risk taking: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5*, 367–383.
- Chao, M. M., Zhang, Z. X., & Chiu, C. Y. (2008). Personal and collective culpability judgment: A functional analysis of East Asian–North American differenc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9*, 730–744.
- Chiu, C. Y., & Hong, Y. Y. (1992). The effects of intentionality and validation on individual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attribution among Hong Kong Chinese. *The Journal of Psychology*, *126*, 291–300.
- Choi, I., Dalal, R., Kim-Prieto, C., & Park, H. (2003). Culture and judgement of causal relev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46–59.
- Choi, I., Koo, M., & Choi, J. A. (2007). Individual differences in analytic versus holistic thin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 691–705.
- Choi, I., & Nisbett, R. E. (1998). Situational salience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orrespondence bias and actor–observer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949–960.

- Choi, I., Nisbett, R. E., & Norenzayan, A. (1999). Causal attribution across cultures: Variation and univers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 47–63.
- Isen, A. M., & Geva, N. (1987). The influence of positive affect on acceptable level of risk: The person with a large canoe has a large worr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39*, 145–154.
- Ji, L. J., Nisbett, R. E., & Su, Y. (2001). Culture, change, and prediction. *Psychological Science, 12*, 450–456.
- Ji, L. J., Peng, K., & Nisbett, R. E. (2000). Culture, control, and perception of relationships in the environ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943–955.
- Kitayama, S., Ishii, K., Imada, T., Takemura, K., & Ramaswamy, J. (2006). Voluntary settlement and the spirit of independence: Evidence from Japan's" northern fronti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369–384.
- Lee, F., Hallahan, M., & Herzog, T. (1996). Explaining real-life events: How culture and domain shape attribu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732–741.
- Levenson, M. R. (1990). Risk taking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073–1080.
- MacCrimmon, K. R., & Wehrung, D. A. (1990). Characteristics of risk taking executives. *Management Science, 36*, 422–435.

- Maddux, W. W., & Yuki, M. (2006). The “ripple effect”: Cultural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of ev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669–683.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suda, T., & Nisbett, R. E. (2001). Attending holistically versus analytically: Comparing the context sensitivity of Japanese and 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922–934.
- Meertens, R. M., & Lion, R. (2008). Measuring an individual's tendency to take risks: The risk propensity scale¹.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8*, 1506–1520.
- Mittal, V., & Ross, W. T. (1998). The impact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nd issue framing on issue interpretation and risk tak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76*, 298–324.
- Miller, J. G. (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da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61–978.
- Morris, M. W., & Peng, K. (1994). Culture and cause: American and Chinese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949–971.
- Nicholson, N., Soane, E., Fenton-O'Creevy, M., & Willman, P. (2005). Personality and domain-specific risk taking. *Journal of Risk Research*, *8*, 157–176.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80–591.

- Soane, E., & Chmiel, N. (2005). Are risk preferences consistent?: The influence of decision domain and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1781–1791.
- Triandis, H.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 Weber, E. U., Blais, A. R., & Betz, N. E. (2002). A domain-specific risk-attitude scale: Measuring risk perceptions and risk behavior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5*, 263–290.
- Yuen, K. S., & Lee, T. M. (2003). Could mood state affect risk-taking decision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5*, 11–18.
- Zeelenberg, M., van Dijk, W. W., Manstead, A. S., & van de Pligt, J. (2000). On bad decisions and disconfirmed expectancies: The psychology of regret and disappointment. *Cognition and Emotion, 14*, 521–541.
- Zemba, Y., Young, M. J., & Morris, M. W. (2006). Blaming leaders for organizational accidents: Proxy logic in collective-versus individual-agency culture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01*, 36–51.
- Zuckerman, M., & Kuhlman, D. M. (2000). Personality and risk-taking: Common biosocial factors. *Journal of Personality, 68*, 999–1029.

ABSTRACT

Predicted Ripple Effect Affects Risk-Taking Decision-Making: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Responsibility

Sangah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dividuals predict the consequences of various events in everyday lives differently. Previous research has demonstrated that the level of personal responsibility that individuals feel about their behavior should depend on the magnitude of the perceived influence that their behavior should have for the future. The present research examined whether the predicted ripple effect of the risky behavior in a given situation would affect risk-taking decision-making and that this effect would be mediated by the perceived personal responsibility. 170 undergraduates (90 males, 80 females; mean age 21.91) from 16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participated in this study. Four different vignettes that differed in the possibility of physical injury (high vs. low) were presented to participants. After reading each vignette,

participants made decisions regarding risk-taking. Next, participants were asked to imagine that they had decided on taking risks, and then to answer questions about effects of their decision-making and personal responsibility they felt for a variety of consequences of their decision-making. The major results were like the following: (1) The predicted ripple effec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perceived personal responsibility; (2) the perceived personal responsibility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risk-taking decision-making; and (3) the relation between the predicted ripple effect and risk-taking decision-making was mediated by the perceived personal responsibility only in the situation in which physical injury was highly likely.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ripple effect, risk-taking decision-making, perceived responsibility

부록 1

<정은경 등(2011)의 시나리오 예제>

당신은 오늘 늦잠을 자는 바람에 중요한 업무 약속에 늦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시속 60km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는 공사 구간을 지나야 합니다. 거리는 밝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당신은 속도제한을 어기고 과속을 할지, 아니면 제한속도를 지킬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부록 2

<시나리오 1> 아래 제시된 시나리오를 읽고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오늘 입사 지원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추천서를 받기 위하여 교수님과 개인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지난 학기에 귀하가 발표한 조별 과제 중의 한 부분에 대하여 극찬을 하시면서, “이 부분이 입사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는 귀하가 이 부분을 담당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귀하가 아닌 다른 조원 A가 담당한 부분입니다. 귀하는 교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추천서를 작성하시도록 해당 부분을 자신이 담당했다고 대답할지, 아니면 조원 A가 담당했다고 사실대로 대답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위 상황에서 귀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래 네모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조원 A가 담당했다고 대답한다

내가 담당했다고 대답한다

2. 귀하께서 그 부분을 담당했다고 대답하는 것이 윤리적인 면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숫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전혀
위험하지
않다

매우
위험하다

3. 귀하께서는 자신이 그 부분을 담당했다고 대답했을 때 교수님으로부터 강력한 추천서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어야 그 부분을 귀하가 담당했다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아래의 빈칸에 적어주십시오.

나는 내가 그 부분을 담당했다고 대답했을 때 교수님으로부터 강력한 추천서를 받을 가능성이 _____% (이상)이어야, 내가 그 부분을 담당했다고 대답할 것이다

4. 만약 귀하께서 그 부분을 담당했다고 대답한다면, 귀하의 행동이 직·간접적으로 대략 몇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범위가 아닌 정확한 숫자로 기입해 주십시오.

_____명

5. 만약 귀하께서 그 부분을 담당했다고 대답한다면, 이것으로 인해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귀하의 행동은 아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래 5개의 문항을 읽고,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숫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
2. 교수님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
3. 조원 A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
4. 학교 및 학교의 학생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
5. 입사 지원한 회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

귀하께서 위 상황에서 귀하 연봉의 10%를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제시된 질문들에 답해주세요.

7. 귀하께서는 귀하 연봉의 10%를 투자한 이후 발생할 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아래 5개의 문항을 읽고,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숫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전혀					매우				
아니다					그렇다				

	1	2	3	4	5	6	7	8	9	10
1. 나와 관련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	1	2	3	4	5	6	7	8	9	10
2. 친구와 관련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	1	2	3	4	5	6	7	8	9	10
3. 이 회사 및 회사 직원들과 관련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	1	2	3	4	5	6	7	8	9	10
4. 그 분야의 시장과 관련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	1	2	3	4	5	6	7	8	9	10
5. 우리나라의 경제와 관련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	1	2	3	4	5	6	7	8	9	10

**귀하께서 위 상황에서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제시된 질문들에 답해주십시오.**

7. 귀하께서는 헬멧을 쓰지 않고 운전한 이후 발생할 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아래 5개의 문항을 읽고,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숫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전혀					매우				
아니다					그렇다				

1. 나와 관련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	1 2 3 4 5 6 7 8 9 10
2. 오토바이 및 자동차 운전자들과 관련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	1 2 3 4 5 6 7 8 9 10
3. 보행자들과 관련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	1 2 3 4 5 6 7 8 9 10
4. 시민들의 교통법 준법정신과 관련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	1 2 3 4 5 6 7 8 9 10
5. 우리나라의 오토바이 안전모 법률과 관련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	1 2 3 4 5 6 7 8 9 10

귀하께서 위 상황에서 상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제시된 질문들에 답해주십시오.

7. 귀하께서는 상급 코스에서 스키를 탄 이후 발생할 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아래 5개의 문항을 읽고,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숫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관련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	1 2 3 4 5 6 7 8 9 10
2. 삼촌과 관련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	1 2 3 4 5 6 7 8 9 10
3. 상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	1 2 3 4 5 6 7 8 9 10
4. 이 스키장과 관련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	1 2 3 4 5 6 7 8 9 10
5. 우리나라의 스키 안전법과 관련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은 귀하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가능한 한 빠짐없이 답해주십시오.

1. 성별: 남 여

2. 나이: 만 _____세

3.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9학기 이상

4. 전공: _____학(부)

5. 오토바이 운전 경험: 있다 없다

6. 벤처기업 투자 경험: 있다 없다

7. 스키 혹은 스노보드 경험: 있다 없다

8. 귀하의 수입원에 체크해주세요. (복수응답 가능)

가족 자신(아르바이트, 직장 등)

9. 귀하의 직계 가족의 연간 소득은 얼마입니까?

아시는 한 정확하게 답해주세요.

1천만원 이하

1천~3천만원

3천~5천만원

5천~7천만원

7천~9천만원

9천~1억 1천만원

1억 1천만원 이상

모든 질문이 끝났습니다.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